전주매일 CMYK

▶▶ 매일 INDEX

16면
팀킴, 오늘부터 컬링 열전 돌입

전주매일

2022년 2월 10일 목요일 (음 1월 10일) 제295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생태문명 육성 비전 실현

전북도, 11대 핵심프로젝트 추진계획 보고회

그린수소 · 재생에너지 기반 확대 등 로드맵 점검

전북도가 생태문명산업 육성을 위한 '11대 핵심프로젝트 추진계획' 보고회를 9일 개최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친환경 스마트화를 통해 전북도의 낙후된 산업체질을 개선하고, 산업생태계를 새롭게 구축해 전북도 산업혁명을 완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9대 역점시책과 11대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해 생태문명시대 산업육성으로 새 시대를 선도하고, 전북의 백년·천년 먹거리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올해 도정 11대 핵심프로젝트에서 중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내실 있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세심히 점검했다.

전북도가 내건 로드맵으로 ▲그린수소와 재생에너지산업 기반확대 ▲탄소산업 상용화·생태계 활성화 ▲친환경·미래차 생산거점 및 상용차 산업생태계 강화 ▲탄소중립 실현 선도와 지역맞춤형 유해환경 개선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 구축 본격화 ▲생태문명시대, 청정·안전 전북여행 콘텐츠 강화 ▲코로나19 대응 일상과 민생활력 회복 ▲새만금 Tri-port 구축과 내부개발 촉진 ▲금융산업 기반 조성 및 금융생태계 구축 ▲생활의 과학화와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 ▲새만금 잼버리와 아태마스터스대회의 체계적인 준비 등이 있다.

전북도 각 프로젝트별 담당 실국들은 핵심사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공유했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완, 완성도 있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봉업 도 행정부지사는 "올해 11대 핵심 프로젝트는 전북도의 생태문명산업 육성을 위해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핵심사업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서 신속하게 추진해 도민들께서 정책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가 9일 생태문명산업 육성을 위한 '11대 핵심프로젝트 추진계획' 보고회를 연 가운데 조봉업 행정부지사(사진 오른쪽)가 로드맵을 점검하고 있다.

도, 이상기후 대응 벼 품종 다변화 지원

내년부터 신동진 외 신규 품종 도입에 4개 분야 6개 사업 일괄로

전북도가 신동진 벼 집중재배를 해소하기 위해 벼 품종 다변화를 지원한다.

도에 따르면, 도내 '신동진' 재배면적은 전체의 64%(지난해 기준)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신동진 자체가 브랜드로서 인식될 만큼 대표 품종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지난해 신동진의 출수기가 기나긴 가을장마 같은 이상기후와 맞물리면서 병해충이 대규모 피해로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도는 앞으로 신동진을 2024년까지 도내 재배면적의 45%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9일 시.군 담당부서를 대상으로 '벼품종 다변화 지원계획' 설명회를 진행했다.

도는 2023년부터 신규 품종 종자공급에서 쌀 브랜드 육성까지 총 4개 분야, 6개 사업을 일괄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종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신동진 이외의 정부 보급종을 할인 공급하고, 기존에 지원 중인 자가 채종포는 신동진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규 품종을 재배하는 농가에 재배기술 교육과 맞춤형 비료 등을 지원해 생산단지를 육성하고, 공동영농시설·장비(육묘장, 방제기 등)를 우선 지원한다.

신규 품종을 매입하는 미곡종합처리장에는 건조·저장 시설 등 필요시설을 지원하고, 신규품종이 우수브랜드 쌀로 거듭하기 위한 홍보·마케팅 비용도 지원한다.

아울러, 품종 다변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업도 지속 추진한다.

지난해 11월 전북도, 농업기술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종자원, 전북농협, RFC 등 관계기관과 농가가 모여 간담회를 한차례 진행한 바 있으며, 이를 시작으로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신품종 벼 지역 시범재배, 보급종 생산·공급, 농기 기술지도 등 품종 다변화에 필요한 영역을 각 기관에서 담당해 장기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신원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품종의 다변화는 단기간에 이뤄질 수 없어 꾸준히 관심갖고 지켜봐야 한다"면서 "품종 다변화가 이뤄질 때까지 현장 소통과 기관 협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대를 비롯한 전주대, 군산대, 원광대, 우석대, 호원대, 군장대, 원광보건대, 전주기전대, 전주비전대 등 도내 9개 대학이 LINC 3.0 사업 구축 및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해 뜻을 같이 하고 지난 8일 전북대에서 공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LINC3.0 구축 · 산학연 협력 활성화 '한 뜻'

전북대 · 전주대 · 군산대 · 원광대 등 도내 10개 대학

3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공유 · 혁신 플랫폼 구축

전북대를 비롯한 전주대, 군산대, 원광대, 우석대, 호원대, 군장대, 원광보건대, 전주기전대, 전주비전대 등 도내 9개 대학이 3단계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육성사업(LINC 3.0)을 통한 공유·협업 혁신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0개 대학은 LINC 3.0 사업 구축 및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해 뜻을 같이 하고 지난 8일 전북대에서 공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3단계 LINC사업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6년 동안 추진되며, 대학별 사업 유형에 따라 20억~55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3월 3일까지 LINC 3.0 사업계획서 신청을 받고, 각 유형별 선정평가를 거쳐 2022년 4월 중 사업 선정대학을 발표한다.

이 사업 3개 유형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는 전북대가 기술혁신선도형, 군산대·우석대·원광대·전주대는 수요맞춤성장형, 호원대는 협력기반 구축형에 도전한다. 또한 군장대, 원광보건대, 전주기전대, 전주비전대는 전문대 수요맞춤성장형과 협력기반구축형에 지원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지역 10개 대학은 긴밀한 업무 협력을 통해 '산학연협력 활성화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미래 산업에 대비하는 인재양성, 고부가가치 창출 기업가형 대학, 산학연협력 지속성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 미래 선도형 혁신 인재양성, 글로벌 산학연협력을 위한 공동 네트워크 운영 등 함께 성장하는 공유·협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대학 간 특화 분야에 대한 공유와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컨설팅 등을 통해 이 사업의 후발 대학들의 성장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동원 전북대 총장은 "그동안 전북지역 대학들이 2단계 LINC+사업에 참여해 지역의 산학협력을 선도해왔다. 이번 LINC 3.0사업을 통해 대학 간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다면 대학의 경쟁력 제고 뿐만 아니라 기업과 지역사회의 동반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산학연관 공유·협업 혁신 플랫폼을 구축해 LINC 3.0사업 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그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대 LINC+사업단 주송 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LINC 3.0 산학연관 공유·협업 혁신 플랫폼을 구축해 각 대학의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전북지역 기업과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실제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전주매일 캠페인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가지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말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자료: 질병관리청